



북한의 두벌농사(이모작)와 남북농업교류

김완수 (익산농기계 대표
농림부 남북농업협력위실무위원)

서론

필자는 지난해 12월 농림부에서 개최된 “북한 농업연구회”에 참석하고, 금년도 1월 금강산지구에서 북한농업인을 만나본 후 북한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두벌농사(이모작)에 대하여 느낀 소감을 정리해 보았다.

최근의 남북관계

북한은 최근 경제부분 역점사업으로 농업을 제시한 이래 농업분야가 들썩거리고 있다.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라며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들이 힘을내 강성대국 건설은 다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증산 방안으로 종자혁명, 두벌농사 활성화, 감자농사혁명, 대규모 토지 정리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그에 호응하여 남북농업교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식량, 비료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각종 농자재의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농업으로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교류의 새로운 장이 열려 금년도에는 활성화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농업의 역할,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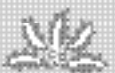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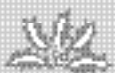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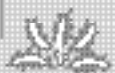
북한에서의 두벌농사(이모작)의 중요성

북한농업 증산의 방안으로 제시된 “두벌농사의 활성화”

에 대하여 알아본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두벌농사에 대해서 “2배의 농토를 갖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성 향상에 가장 빠른 길”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두벌농사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쌀+보리, 쌀+감자, 감자+콩 등 여러작물을 심을 수 있다. 그러나 쌀+보리의 두벌농사에 대해서 가장 안정성이 있다고 했다. 겨울에도 자랄 수 있는 작물은 보리재배가 적격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04년도 3월, 방북하여 만났던 황해남도 신천군협동농장 위원장도 “쌀+보리 두벌농사를 지으면 1ha당쌀이 6~7톤, 보리가 3~4톤, 합이 10톤이다”며 두벌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확시 곡물기준임)

그러나 “종자확보와 노동력이 관건”이라고 했다. 또한 2004년 10월말, 금강산지구 삼일포협동농장에서 남북공동으로 보리파종을 하였을때 협동농장 위원장도 “두벌농사만이 식량자급자족의 길”이라 이야기 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를 다녀본 결과는 약 5~10%정도의 보리농사를 짓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낫으로 벼를 수확하고, 벼단을 묶어 땅에서 건조한 후 그리고 탈곡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보리파종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리파종과 복토작업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벌농사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빠른 벼수확, 건조, 보리파종, 복토작업등 일





관된 기계화만이 대규모 두벌농사의 지름길인 것이다. 여기에 남북농업교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금강산 삼일포협동농장의 두벌농사 시범사업

남북농업협력의 한 모델이 되어온 금강산 북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이 남북농업협력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이 2005년 공동시설에서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이라고 밝히자, 1월 4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에 호응해 “북에 농자재 지원과 영농기술, 품종개량사업등을 통해 대북농업혁명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강구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금강산 상일포의 시범농장을 통한 협력을 언급했다.

(사)통일농수산포럼의 주관으로 이뤄진 남북협력사업은 수도작 1000평에 벼종자 5개 품종의 시범포를 조성하였고 북한도 북한종자인 대벼, 룡산벼, 함주5호등을 뿌렸다. 결과는 400~500kg 생산으로 이어져 북측보다 10a당 100kg 정도 많았다. 또한 15일정도의 빠른수확이 이뤄지므로서 두벌농사를 확대할 수 있어서 북의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벼농사에서 성과가 나오자 북한은 두벌농사에 관심을 보여서 지난해 10월 약 10,000평에 보리시범포를 조성, 공동운영하고 있다. 우리 보리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등 일관된 농자재를 사용하고 파종작업은 남북한 농민이 공동으로 하였다. 특히 보리 복토작업은 수작업시 1인당 40~50평이 가능하나 기계화작업시에는 1일 약 10,000평의 작업이 가능해 북한협동농장기 시장으로부터 매우 좋다는 평을 얻었다. 농기계 1대가 약 200명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남북최초의 두벌농사 시범사업은 앞으로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북한의 두벌농사에 좋은 모델을 던져 준 것이다.

두벌농사의 생산성과 효과

현재 우리는 10단보(1정) 보리생산량이 약 3.8톤, 현재 북한의 논 면적은 약 58만정보이므로 약 1/2인 30만정보가 보리두벌농사가 가능하다면 약 100만톤이상의 추가적인 식량확보가 이뤄질수가 있다. 우리의 충분한 농자재가 지원된다는 가정아래서다.

두벌농사가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의 열쇠는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와 관련 영농기술 등 세트화된 우리 농자재가 필요한 것이다. 즉 북의 식량난 해결과 동시에 어려운 우리 농자재산업의 발전이 기약되는 일이다. “고기를 잡아서 쥐어주는 것 보다도 고기를 잡는법을 알려주는” 남북이 서로 윈-윈 하는 일인 것이다.

남북농업교류의 전망

그 동안 여러 유형의 남북교류가 있었지만 북한도 특히 남북농업교류에 대해서는 제일 잘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업교류는 타 분야보다 비정치적이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금년도 북한이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농자재와 노동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농업교류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꽃피는 봄날”남북은 농업교류가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벌써부터 북한은 대규모의 못자리용 비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농기계의 지원등 서서히 남북한은 농업으로서 해방되고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금년도는 광복 60년, 6.15선언 5주년이 되는 해로 남북한이 매우 중요시 여기는 해이다. “우리의 농업, 우리의 농업인”이 남북해방의 통일전도사로서 교량 역할을 하리라 기대 해본다.

